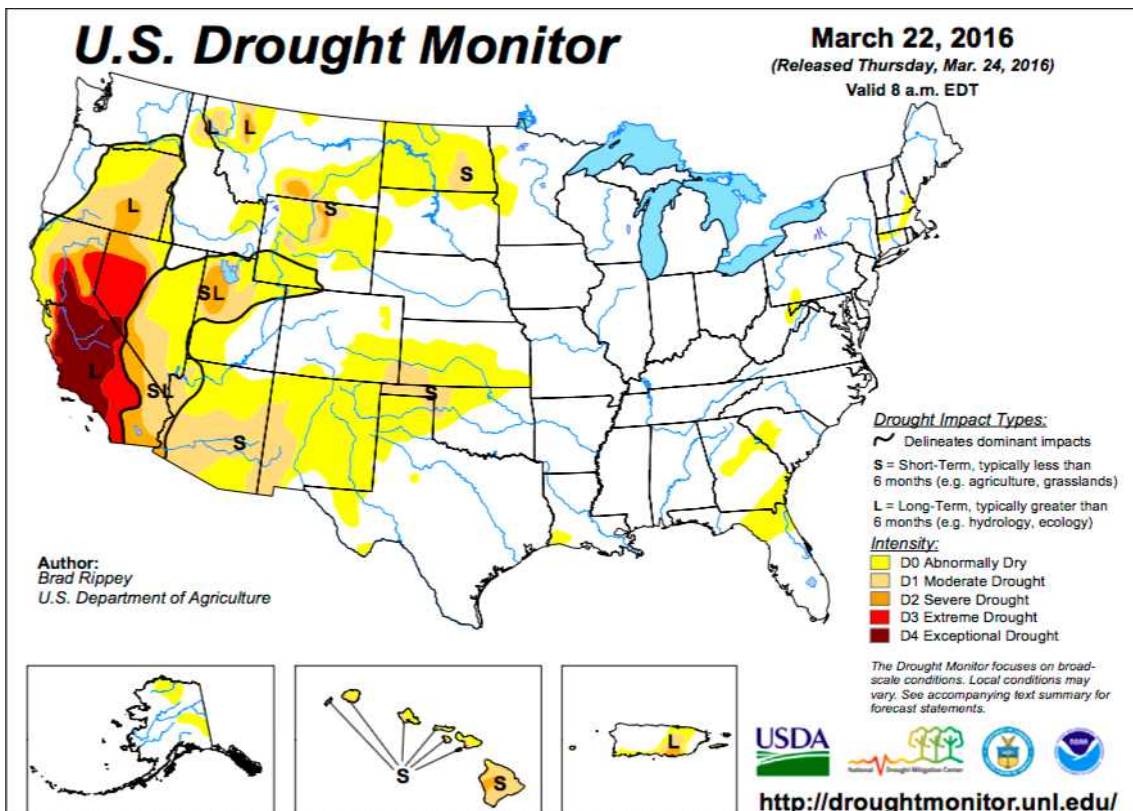


3월 29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3, No. 13)

□ 미국 기후 현황(3/20~3/26)

캘리포니아 북부와 북서부 일대에는 주 초반 많은 양의 비가 내렸지만, 비구름이 주 후반으로 가면서 중부와 동부로 이동하면서 비가 그쳤다. 남서부 일대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다. 북서부에서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산간지역에 많은 양의 눈이 내려 가뭄을 어느 정도 완화해 주기도 했다. 로키산맥 중부와 미시간 북부 저지대 일대에서도 많은 양의 눈이 내렸다. 이번 비구름은 동부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이 덕분에 남부 고원지대와 남서부 일대에서는 천둥번개가 치기도 하는 등 대기가 불안정한 가운데 소나기가 몇 차례 내렸고, 비가 그친 다음에는 건조한 날씨가 반복되었다. 캔자스와 오클라호마 경계지 인근의 Anderson Creek에서는 산불로 400,000에이커에 달하는 지역이 피해를 입었다. 오클라호마 인근 지역에서는 지난 3월 20일 기온이 5~20°F까지 내려가고, 눈이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일시적인 추위가 물러난 이후인 3월 21일부터 22일 사이에는 낮 최고 기온이 80~90°F까지 오르기도 했으며, 주 후반으로 가면서 다시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는 등 기상 변화가 심했다. 남동부 일대에서도 3월 21~22일 사이에 일시적으로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갔다.



□ 농업 현황 요약(3/21~3/27)

대부분의 지역에서 맑은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걸프연안 일부 지역과 태평양 연안 북서부 일대에서는 지난 한 주간 1.5인치 이상의 비가 내렸다. 남서부와 오하이오, 대서양 연안 중부 지역 등에서는 평년에 비해 기온이 높았으며, 특히 오하이오 일부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8°F 이상 높은 날이 한주 내도록 이어졌다. 델타, 콜로라도, 메인, 텍사스 동부 등에서는 평년에 비해 기온이 낮은 날이 이어졌다.

□ 세계 기후 현황(3/20~3/26)

■ 유럽: 북부와 중부 일대에서는 맑은 날씨 덕분에 농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주 후반 5~25mm 내외의 소나기가 내리기도 했지만, 이번 비로 겨울작물과 유지작물에도 수분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졌다. 북동부 일대의 겨울작물들은 아직까지 휴면기에 머물러 있고 프랑스 북부와 영국에서는 지난 한 주간 기온이 6~8°C 사이에 머물면서 일부 작물들은 휴면에서 벗어나 성장을 재개하기도 했다. 스페인 전역과 이탈리아 남부 일대에서는 10~25mm 내외의 소나기가 내렸다. 남동부 일대에서는 10~50mm 내외의 비교적 많은 비가 내려 지중해 연안 일대의 귤, 오렌지 수확작업이 다소 지연되기도 했다. 발칸반도 일대에서는 선선한 날씨가 이어졌다.

■ 구소련(서부): 주 초반에는 지난주부터 이어진 추위가 기승을 부렸으나 주 후반으로 가면서 추위가 물러가고 따뜻한 날씨를 회복했다. 우크라이나 남부와 중부, 러시아 남서부 일부 지역에서는 주 초반에는 밤사이 기온이 영하 5~10°C 까지 내려가는 등 추운날씨가 이어지면서 겨울밀 성장이 지연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추위로 인한 밀의 동해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추위로 인해 벨라루스 북부와 러시아 Volga 지역에서는 농지에 10~30cm 내외의 눈이 쌓이기도 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주 후반으로 가면서 기온이 따뜻해졌고, 10~30mm 내외의 비가 내리기도 했다.

■ 동아시아: 중국 남부에서는 주 초반 25~150mm 내외의 비가 한두 차례 내렸다. 양쯔강 서부 일대에도 25~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양쯔강 동부에서는 서부에 비해 적은 양의 비가 간헐적으로 내렸으며(10mm 미만), 북부 고원 지역에서도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 이들 지역의 평균 기온은 평년에 비해 1~3°C 정도 높은 편이며, 밀과 유채 등에 별도의 용수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다.

■ 호주: 동부 일대에서는 대체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졌으며 이 덕분에 면화 등의 수확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퀸즐랜드 남부 일대에는 5~25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대부분의 작물들이 수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뉴 사우스 웨일즈 북부에서도 주 후반에 비가 산발적으로 내렸지만 양이 많이 않아 수확작업 등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동부 일대에서는 최근 몇 주간 평년에 비해 기온이 높은 날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20°C 중반에서 30°C 초반까지 오르내리고 있다.



■ 아르헨티나: 중부 일대에서는 선선한 가운데 맑은 날씨가 이어져 여름작물과 유지작물의 수확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주 초반에는 Entre Rios, Santa Fe, Cordoba 동부 및 Buenos Aires 북부 일대에 10~50mm 내외의 비가 내리기도 했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 이들 지역은 지난 한 주간 기온이 평년에 비해 1~2°C 정도 낮았으며, 밤 동안에는 기온이 5°C 미만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북부 곡창지역에서도 기온이 평년에 비해 2~3°C 정도 낮은 날이 이어지고 있으며, 낮 최고기온도 30°C 미만에 머물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주 초반 5~50mm 내외의 비가 내리기도 했다. 아르헨티나 농림부에 따르면 3월 23일 기준 해바라기의 수확률은 79%이며,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간 뒤쳐진 수준이다. 해바라기 최대 생산지역인 Buenos Aires의 수확률은 65%이며,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의 72%에 비해 다소 늦은 편이다.

■ 브라질: 중부와 남부의 주요 곡창지역 일대에서는 비가 내렸다. Mato Grosso와 Rio Grande do Sul 일대에는 25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Parana, Santa Catarina, Rio Grande do Sul 북부 등에서는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집중적으로 내렸다. 북동부 내륙의 Tocantins, Maranhao, Piaui, Bahia 서부 등에서도 비가 내렸지만, 그 밖의 Bahia 남부와 Minas Gerais, Goias 등에서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 Sao Paulo, Minas Gerais 남부 등에도 10~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이들 지역에서는 평년에 비해 2~4°C 정도 기온이 높은 날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낮 최고기온은 30°C 후반까지 오르내리고 있다. 남부지역에서는 지난 한 주간 평년에 비해 2°C 정도 기온이 높은 날이 이어지고 있고, 낮 최고기온은 35°C까지 올랐다.